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봉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com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유·무위법 둘 아니게 보려면...

스님의 인도로 이제 발걸음은 꽤 고 나아갑니다. 오늘 올릴 질문은 유위법과 무위법을 같이 아우르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묻고자 합니다. 공부에 진전이 있어 지혜가 생긴다면 유·무위의 세계를 둘이 아니게 차고 나갈 수 있으면 아직 못 미치는지라 부딪치는 경계 마다에 일반적으로 유·무위법을 구분지어 그것에 또한 착을 두고 나가는 습이 있기에 한 말씀 여쭙니다.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틀로 보지 말라. 따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일러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깊이 알고 보면 마음의 과학 이야말로 깊고 아름답고 선(善)한 참과 확신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하면 마음법은 무위(無爲)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학은 유위법(有爲法)을 다루어 이치를 밝힙니다. 그리하여 사람 들에게 여러가지로 편리한 것을 제공합 니다. 그런데 마음법은 보이지 않는 원 리,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차까지도 밝혀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 람들을 완전한 상태로 진화시켜 주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법을 배 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행과 무위 행이 두루 갖추어져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에도 자유롭고 드넓은 것이 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그냥 일 반적인 과학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산다 면 우리는 끝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우리들의 목표인 열반 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학시대에, 작게는 우 리 자신을 자유인으로 이끌면서 가정, 사회, 나라를 위해 크나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자 기 자신, 즉 주인공을 찾는 공부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는 그 자리로부터 모든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국가, 인 류의 문제도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모두에게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에 서 찾아야 합니다. 밖에서 찾는 것은 길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밖에서만 찾는다면 분별하고, 다투고, 불행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안으로 깊이 들면 들수록 우리들의 마음 은 진실해지고, 무거워지고, 자비가 흐르 게 됩니다. 그러면 자절로 본인이 거니와 주위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광대하 고 묘한지,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즉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나오 는 힘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텅 비었고, 텅 비었으나 거기에서 미묘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죽 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텅 빈 자리 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너를 초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도, 표현 할 수도 없는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 니다.

그래서 관하라는 겁니다. 한 군데서 들 고 나는 것이니,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놓 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모 로 바깥으로만 그달리고 방향하기 때문 에 이렇게도 비유하지요. "용광로에 다 넣어서 못쓰게 된 쇠를 쓰는다면 다 시 새로 쓴 것까지 도구로 재생되어 나오 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그와 같이 무 한한 능력의 소유자인 자기 자신을 믿 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순간 순간 변화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 앞장설 수 있는 인종이며 마음의 향기로운 향이 며, 밥 한 그릇을 놓고도 모두를 먹이고 또 한 그릇이 되 남을 수 있는 그런 중 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무위세계·유위세계를 같이 결합해서 부 처님 마음과 증생의 마음이 따로 없이 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영원한 그 뿌리, 주인공이니 그렇게만 믿고 실천 행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 근본에 되맡겨 놓을때 참나 발견

15면에서 계속

마음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스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스님의 가르침에 인연되어 공부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부의 진짜 맛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법회시간이 소중하고, 공부가 하고 싶고, 공부를 꼭 해야만 하겠다는 마음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저 자신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 자리를 지나거나 지켜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의 마음을 지켜보다 보니 요즘에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의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공은 나를 이렇게 공부시켜서 어떠한 삶을 살게끔 하려는 걸까?" 하는 의정입니다. 이러한 의정이 나온 자리에, 다시 그 의정을 되 맡기며 "나를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끌어 가는 주인공! 당신은 알고 있었어. 내가 왜 공부를 해야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고 계속 관하고 있습니다. 스님! 지금 저의 이러한 마음상태에 대해서 스님의 큰 가르침을 간절히 청하 옵니다.

누구냐가 다 그럴 이유가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이기엔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이 있어요. 형성을 시키는 데 는 모든 게 합쳐져야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자기가 과거 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선 업이 전부 같이 혼합이 돼서 형성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근본, 진짜 자기 뿌리로 생각을 하세요. 그 업식 속 에서 나오는 것을 나오는 자리에서 되 놓고 주인공만이 풀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있음을 믿고 맡 기세요. 그 자리에 맡겨 놓고 나오는 대 로 되맡겨서 일임한다 참 자기가 발견 이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 서 금세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면 그대 로 여려한 거고, 어떠한 거든지 욕심 많 이 내고 먹으면 체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게 되고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소 화가 잘 되면은 걸림없이 돌아가고, 모든 걸 재로 알고 실천을 해서 체험을 한 다면은 마음의 발전이 되고 지혜로운 마 음이 생기고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창조력이 생기지만은 만약에 그런 마음 이 없다면 내내 걸려서 무식의 50% 정신 세계는 모르고 50% 물질세계만 알게 되 니 그러면 걸려서 못살아. 지금은 정신 세계가 아니라면 안되는 시대죠.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서 사는 시대가 아닙 니까! 꼭 육으로 잡아 먹어야 잡아 먹히 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을 뺏어 먹고 사 니까 정신을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분들이 아집과 아상 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 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 는데 어려움이 없이 대업을 쌓고, 내 가정이 부유하여 고생하지도 않는데 뭘 배 운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다면, 보이는 세계의 물질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소견 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 으로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쪽정이를 낚는 벼이삭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실천

을 옮길 수 없으니 사람이 되어 가지고 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격이나 같은 것 이죠.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 자리 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니까 없 애는 것도 그 자리 아닌가 하고 되맡기 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하 나도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누가 금방 죽는다고 해도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실로 믿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 나도 답답할 게 없지만 힘이 없는 사 람일수록 방방 뛰죠. 그냥 배 안에 탄 증 생들이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면 배가 뒤

자기마음 못 다스리고 고개 숙이지 못한다면 쪽정이 벼이삭과 같아

집하고 말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배는 반드시 뒤집히고 말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는 따 나서 바깥으로 찾지 마시고, 아무리 위대 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는다면 부처 님께서 너는 고기덩어리만 아는구나. 내 가죽과 내 뼈다귀만 알지. 내 골수를 모 르는구나 하시고는 눈을 감으실 겁니다. 진수를 바로 알아야 부처님의 형상은 내 형상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 는 걸 알게 되며 부처님은 형상으로 저 려게 앉아 계시지만 다 알고 난 뒤에는 형상으로 보이는 저 부처님이 아니고 들 이 아니라 그것까지 증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야 하는 것은 누구의 탓 도 하지 마시고 일체를 자기 탓으로 돌 리고 하심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이 다 해놓은 것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먹 는 반면에 바로 또 자기가 해서 남을 대 접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 야만 돼요.

죽음의 의미 알고 싶어요

더 높으신 스님께 강요법문 구합 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몸부림치며 가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비명횡사 하는 사람, 고질병에 걸려 재산을 탕진하 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에 타죽 는 사람도 있고, 반면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나 자신이 갈 날을 예언하고 좌탈임망하는 스님들도 있습 니다. 스님!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현 장에서 업무상 여러 죽음의 형태를 눈으 로 자주 목도하면서 말 못할 여러 가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 들이 살아 있을 동안 죽음이란 것을 생 각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있고 있 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 또는 지인 등 이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통곡하며 한없이 슬퍼합니다. 어떤 도반은 살아있 을 때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한번 생 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의미있는 진언을 합니다. 부처님 임종은 태연자약 하였고 자기 자신과 법을 동불삼아 정진 할 것을 당부하셨는데 오늘을 살아야 는 도반들은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 다가 올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길을 여쭙 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웃이 더러우면, 길을 가는데 지나가 는 차가 흙탕물을 튀어도 그냥 집에 가 서 얼른 씻습니다. 남이 볼 때 흉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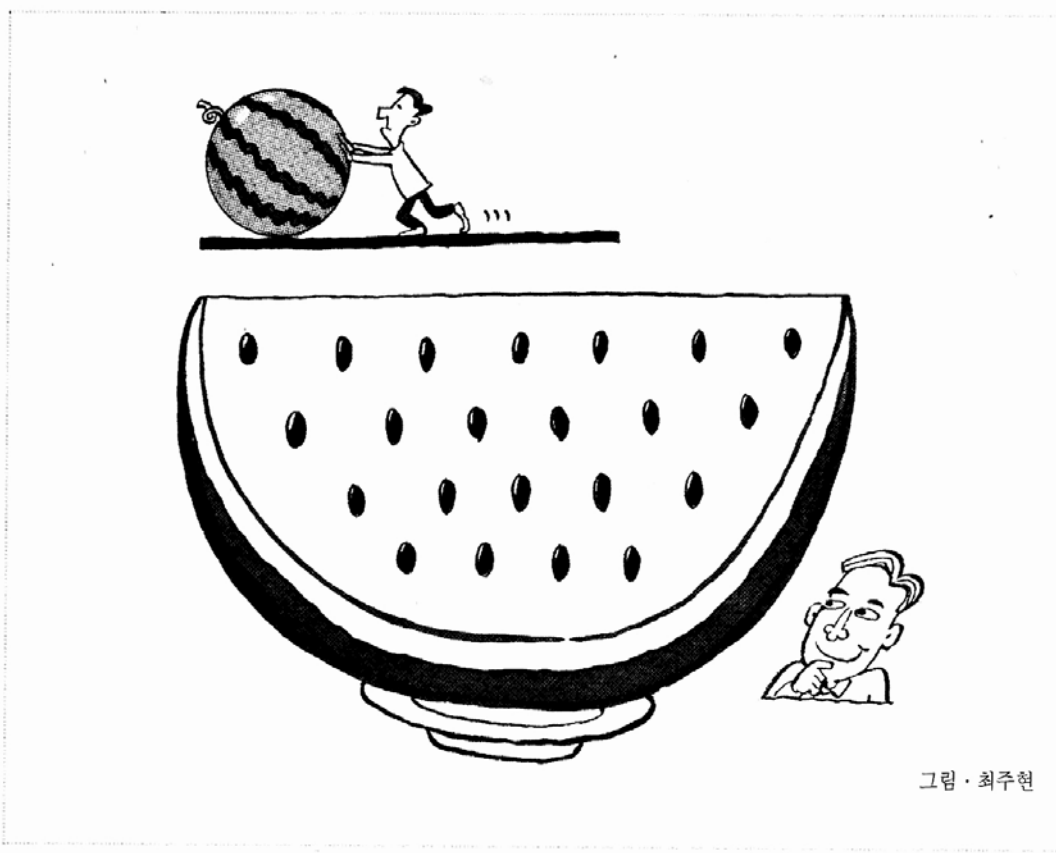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마음이 짓고 살아온 대로 부처 보살이 나와 친견도 하고 사자 마구니가 나투기도 해요

요. 그런데 우리 몸은 여기가 찌그러지 고 저기가 찌그러져서 아주 못생겨도 '아 이구 죽으면 어쩌나!' 이러거든요. 그걸 다시 개조를 할 생각도 안 하구요. 그런 데 지금 얘기하듯이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 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 못해서 암흑 이라는 게 아니에요. 큰 것도 아주 작게 보이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똑바른 눈이 못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 면 죽는 대로 그 눈이 말입니다. 개가 사는 집도 송개 보이고 또 사람이 사는 집 도 아주 오막살이로 보이고, 자기가 한 것만지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욕심에 빠 진 그 집착하는 의식이, 좋은 데로만 찾 으니까 그런 것이 좋지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자기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입력된 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개집 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닭집으로도 들어 가고, 토끼집으로도 들어가, 새집우리 로도 들어가, 까치둥우리로도 들어가 고 뱀 소굴로도 들어가, 벌 집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림하면 아니 된다 하는 거죠.

여기 자연 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럼 잠재의식 자체가 여기에서 자기가 모 든 살아난 거, 어려서부터 온 것을 대 부분 다 압니다. 들어서도 알고, 자기가 알기도 하고, 그렇게 아는데 알고 있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자기가 순하고 착하게 살았다면 착한 보살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보살로 나무어 보여주는 거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 보살이 바로 나 타나는 거죠. 자기 본성이 나타나서 자기

를 아주 좁게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런 데 자기가 아주 악마로 살았다면 이걸 그냥 큰 사자로 뿔이 돌고 동동이를 들고 나타나는데 그 착이 많으니까 '나 는 안 가' 하면은 '어, 그래 안 가?' 그러 고 그냥 때려서 데려가는 그러한 문제 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천도를 시 킨다. 49재를 지낸다. 100일재를 지낸다 하는 이런 법이 생긴 겁니다. 길을 모르 니까, 그래서 장성이 지극한 사람은 길을 아는 사람이 탁 채어서 붙잡아 가지고 가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의 집에도 갖 다 넣어준단 얘깁니다. 자기가 스스로 부처 님이 된 사람은 자유인이니깐, 그거야 뭐 누가 끌고 가고 자시고가 없겠죠.

그러면 부처는 어땀으며 그 보살이 어 땀느냐.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한 대로 그 요술 주머니 속에 보배 주머니 속에서, 자기 마음 쓴 대로 보살로도 나 와서 자기를 친견하고 부처로도 나와서 자기를 친견하고, 신장으로 나오자 자기 가 자기 동통이를 들고 나와서도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밖에 남는 게 없 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음을 잘 쓴 사람은 잘 쓴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고, 잘못 쓰는 마구니들끼리 모인 데는 마구니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주 정말 우리 사 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양면이 보이지 않는 미지수 의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똑같이 들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뜻은, 그러니 암흑

이라는 것은 우리가 50% 밖에 모르기 때 문에 암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비결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항상 주인공 에 맡겨 놓으면, 그렇게 깊어지면은 아무 데도 속지 않습니다. 천만 가지 금을 가 지고 와서 이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속 지 않죠. 그리고 마음에 욕심도 없애지요. 세상을 다 준다고 아무리 꼬여도 좋 은 게 좋은 걸로 보이질 않는 거죠. 지금 생사에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작을 이룬대도 그 내막을 보면 그냥 고통은 더 커지는 걸 아는데 그런 걸 왜 자기가 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주인공에 모두 맡겨 놔라. 맡겨 놓 기만 하고 내 몸뚱이가 살고 죽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전부 주인공이다 이겁니 다. 그러니 거기다 맡겨 놓고 살라. 나 는 그냥 주인공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눈 도 귀도 모든 것이 그 주인공에서 나를 이렇게 형성시켜 놓은 거 뿐이다. 한 몸 에 모든 이름이 달린 거니 한 몸에다가 그냥 맡겨 버려라 이겁니다. 쓰긴 쓰되 그런 거죠. 그렇게 알고 들어간다면 어 디에도 속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 지껏 살아오면서 입력시켜서 아주 배고 밴 그 습을 다 떼는 방법이고, 앞으로는 거기에 속지 않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과거의 입력을 떼는 방법, 앞으로도 속 지 않는 방법이니, 살아가면서 진정 중 요한 것이 뭔지를 놓치지 않고 가신다면 나와 남이 다 이렇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가짜본 인본을 보듯 그달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이서이문